

<동짓달>과 우리말의 위엄

임규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문학평론가

1

우리말을 생각하니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를 두고 한 말이 떠오른다. “단 한마디라도 존재하는 모국어를 삭제하는 것은 한 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이다.” 훔볼트의 유명한 언명대로, 언어는 명백히 인간만이 소유하는 이성의 기관(Organ)으로, 인간의 모든 사유 세계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행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가 언어를 통해 실현되므로 ‘언어는 곧 인간’이다.

그런 언어와 관련하여 최고의 헌사는 아마도 시인이나 작가에게 가장 많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해당 민족이나 국가가 가장 자랑하는 문학 작품이야말로 그 나라의 최고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언어의 맛과 깊이, 특성이야말로 한 나라 언어의 위엄과 개성을 드러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을 대표할 ‘불후의 명작’으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내세울 수 있을까. 흔히들 하나의 작품이 ‘불후의 명작’으로 추앙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미적 상상력과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정신적 위대함이

작품에 담겨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예술적 사유와 감동의 도수를 가능하고 흡입할 수 있는 폭넓은 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쯤이면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작품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찬사를 쏟아 놓은 바 있다. 가령 “진이는 여기서 시간을 공간화하고 다시 그 공간을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구상과 추상이, 유한과 무한이 일원화되어 있다. 정서의 애뜻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수법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수 중에도 이에 따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칭송한 피천득, 또는 “우리가 물려받은 몇 천 수 시조를 몽땅 내어놓고 바꾸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시조”라고 극찬했던 이병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나는 가람보다 한술 더 떠서 이 시는 세계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최원식의 찬사만으로도 이 작품의 경지를 충분히 짐작할 터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동짓달>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위엄, 문학적 성취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공유하는 것일까. 사실 문학, 특히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외형적으로 먼저 비일상적인, 비산문적인 어떤 특이성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태연하게 일상적, 산문적으로 독해하는 이율배반성이다. 사람들은 먼저 시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수사학적 특성에 주목한다. 비유의 사용이나 언어적 특징, 짜임새들이 특정한 내용을 문학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시다움’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게 된다. 언어가 갖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계나 진실성의 탐사보다 언어로 표출하는 외형적 틀·형식에 우선권을 준다.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도 대체로 그러했다. ‘밤의 허리’, ‘춘풍 이불’ 등의 기발한 비유와, 시간을 공간으로, 관념을 물질로 치환하는 놀라운 상상력, ‘서리서리와 굵이굵이’ 등의 맛깔스러운 어휘를 활용한 대조 기

법 등을 하나같이 앞세운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산문으로, 자기만의 일면적 이야기로 시를 풀이해 나간다. 가령 이런 식이다. 애인과 떨어져 있는 황진이에게 밤은 한없이 길다. 더구나 그 밤은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짓달의 밤이다. 그러나 그 밤은 애인과 함께라면 너무나 빨리 새 버릴 밤이다. 이렇게 지겹도록 넘쳐 나는 밤의 시간이 막상 애인이 오고 나면 그때는 그 반대로 너무나 모자랄 것이다. 그녀는 그 밤을 저축해 놓고 싶다. 애인 곁에 있게 됐을 때 모자라게 될 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모자란 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녀는 밤을 한 토막 잘라 내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놓기로 한다. 애인이 온 날 밤에 굵이 굵이 펴기 위해. 왜냐하면 그날 밤이 너무 짧을 것이 분명하므로.

시 역시 읽기 위해 존재한다. 읽는다는 것은 이해를 뜻하고, 또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을 뜻한다. 제아무리 난해하고 의미를 거부하는 시라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되고, 이해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해와 해석이 산문과 다르다는 데 시적 특성이 있다. 예술에서 관념은 물질화되며, 물질 자체가 의미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런 만큼 시는 산문적 의미보다는 시적 심상(images)이며, 시적 심상은 사유도 아니고 사물도 아닌 의식과 대상 사이의, 세계와 그것의 개념화 이전의 최초 표상 사이의 가장 원초적 그물망을 형성한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시는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거나 표상하기를 멈춘다.

문학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특정한 언어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 힘든 사물, 사건, 사실을 상상을 통해 사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넓혀 주어서이다. 이 말은 곧 작품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즉 살아 있는 예술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편적 성분을 예술성이란 이름으로 꼬집어내어 적당히 처분해서

는 안 된다. 우리가 ‘문학 언어’라고 할 때는 단편적 조각으로서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조직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내의 언어들은 해당 언어가 유기체로서 작품 전체에 어떤 활동을 하며, 대체할 수 없는 필연성의 고리로 언어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어떤 세계를 창조하느냐에 있다.

2

동짓달(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은 님 오신 날 밤이여드란 구뵤구뵤 퍼리라

어휘 수준에서 보자면 <동짓달>에 아주 독특한 혹은 아주 새로운 말은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주 기발하다고 하는 걸까? 니체의 말대로 진짜 독창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으나 아직 알아차리지 못해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동짓달’, ‘밤’, ‘허리’, ‘춘풍’, ‘이불’ 등 그 자체는 너무도 흔하다고 여겨지는 말들이다. 겨울밤이 가장 길고 봄바람이 따스하다는 것도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 뻔한 말과 생각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형상화로 창조했으니 그런 마음의 눈, 창조의 힘이 야말로 언어의 참 본질에 부합한다.

사실 언어적 차원에서 시를 이해하는 일은 작품 속 언어와 언어적 연계, 비유 등이 만들어 내는 중층적·다의적 의미와 이야기, 그런 집중과 확산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작품 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금 개별

언어들이 끌어안음으로써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시적 운동, 언어의 활동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최종 정리된 형식의 분석에서는 ‘완결된 의미, 의미의 고정’으로서 언어가 아니라 ‘활동하는 존재, 존재의 활동’으로서 언어를 얼마만큼 잘 운용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동짓달’ 혹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사실상 특별한 설명 없이도 특정한 정서를 일으킨다.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추운 때, 혼자의 외로움이 계절과 때에 맞물려 상승한다. 그런데 돌연 ‘한 허리를 버혀내어’로 시는 비약한다. 가장 강력한 시적 사건이자 상상의 열림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 전체의 ‘목적어’로 시를 이끈다.

그렇게 보면 ‘동짓달’이란 말도 여러 겹이다. ‘동지’가 있는 음력 11월, 가장 밤이 길 때라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장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대한 해석부터 단순치 않다. 특정한 ‘하루’가 아닌 ‘달’이라면 이 ‘밤’은 복수의 ‘밤’이다. 낮이 짧다는 사실 자체까지 지워 버린 ‘밤의 세계’로 ‘동짓달’은 당긴다. 그러한 밤이 지속되는데 돌연 ‘한 허리’를 베어 낸다. 그렇다면 화자는 동짓달 긴 밤을 통과한 연후에 그가 살아온 밤들의 ‘한 허리’를 베었다. ‘한 허리’는 동짓달 한가운데 밤의 밤. 비유의 자장(磁場)은 갈수록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아지고 응축된다. 동짓달 동짓날의 자시(子時). 그런데 이런 시간만의 흐름을 허용치 않는다. ‘시간’이 ‘허리’로 물질화, 육체화하면서 정신적인 것이 덩달아 일어선다. ‘기나긴 밤’이 ‘잠을 못 이루는 밤’, 아니 ‘어둠 속에서 환하게 깨어나는 밤’으로, 그리하여 외로움이 그리움으로 성숙하는, 육신과 마음이 하나 되는 뜨거운 합류가 거기 있다.

여기서 통상 ‘버혀내어(베어 내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 대신 ‘둘헤내어(둘로 끊어 내어 혹은 나누어)’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가령 최원식은 “일반적으로는 ‘둘헤내어’(둘로 끊어 내어) 대신 ‘버혀내어’인데,

후자의 살기(殺氣)는 사무침 속에서도 따뜻하기 그지없는 이 시의 전체적인 기품과 씩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전자를 옹호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맥락상 ‘한 허리’와 어울리는 것은 ‘버혀내여’이다. 또 황진이이 작품 전체가 보여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섬세하면서도 활달한 면모를 생각하면 ‘버혀내여’가 훨씬 강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한 길 사람 속의 심중(心中) 심연(深淵)을 날카로운 단애처럼 당당하게 보여 주겠다는 장부의 이미지가 서늘하다. 이육사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절정〉)를 연상케 하는 말이다.

흔히 〈동짓달〉을 단면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밤의 한 반쯤을 떼어 내어 이불 아래 넣었다는 말 그대로 산문적 풀이이다. 거기에서 ‘겨울 긴 밤’의 한 자락을 ‘짧은 봄 밤’에 이어 붙이겠다는 산술적 풀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한 허리’의 육체성, 그리고 거기에 깃든 정신성을 생생하게 포착하지 못한 표피적, 기계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동짓달 가장 긴 밤의 한가운데를 시인 자신의 깊은 마음으로 치환하는 놀라운 언어적 마술. 최원식의 말대로 “이 시조를 나직이 읊조리다 보면, 저절로 ‘과연!’이란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얼마나 골똥했기에, 시인은 동짓달의 그 차고 긴 밤의 허리를 볼 수 있었을까?”를 함께하는 일이다.

그럴 때 중장의 ‘춘풍 이불 아래’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시간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데 묶는 절묘한 감각적 심상의 세계가 눈부시다. 단순히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겨울冬’을 ‘봄[春]’으로 만든, 나아가 사물화된 ‘밤’을 생명의 동력인 ‘바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기 자신의 성숙이 여기 안받침하고 있다. 이불 아래 넣는 것이 나와 거리가 있는 또 다른 객관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과 그리움의 마음이라는 주체적 표상의 생성이야말로 작품의 진정

한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짓달’은 더 큰 세계로 이끈다. <농가월령가>에서 노래한 ‘일양시생지(一陽始生地)’로서 동짓달이다. 『주역』에서 말한 복괘(復卦)로, 태양의 죽음과 부활로 상징화되는 전환점이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해 양의 기운이 싹트는 반전(反轉)이다. 온 누리에 짝 들어찬 음의 기운이 줄어들고 이제 사랑과 꿈의 불씨를 지피는 양의 기운을, 시인은 제 마음이 키워 온 사랑의 바람으로 일구는 우주적 시이기까지 하다.

<동짓달>이 비유와 대조, 연결의 수사법을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질적인 운동의 자연스러운 전개와 만나는 내용의 형식화, 형식의 내용화이다. 가령 ‘동짓달 지나긴 밤’은 종장의 ‘얼은 님 오신 날 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 중장의 ‘춘풍이 길을 연다. 그것으로 초장과 종장의 ‘밤’이 달라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실제로 초장은 중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중장은 종장과 긴밀히 이어지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초장과 종장 사이는 질적 비약과 고양으로 한껏 확장된다. 중장의 ‘서리서리’는 종장의 ‘구뵈구뵈’와 절묘하게 짝을 이뤄, 홀로 안으로, 안으로 압축하고 응축시킨 것을 드디어 사랑하는 님과 함께 팽창, 폭발시키려는 삶의 환희로 출렁인다. 좁은 방안, 한 길 사람 속에서 웅장한 자연, 큰 세상을 향한 대서사시다. ‘서리서리’는 고종석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 부사어’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사전 속의 분할되고 단편화된 해석 모두를 함께 끌어안고 움직인다.

1.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비녀는 또다시 땡그랑 소리를 내어 떨어지고 머리 쪽은 서리서리
풀어진다. 출처: 박종화, <다정불심>

2. 뱀 따위가 몸을 따리처럼 둥그렇게 감고 있는 모양.

뱀이 몸을 서리서리 감고 있다.

3. 감정 따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양.

가슴속에 서리서리 얽힌 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에 서리서리 슬픔이 뒤엉켰다.

목 타는 그리움과 슬픔과 분노가 서리서리 맺혀 있는 그 땅을 쉽

게 떠날 그가 아니었으나... 출처: 김성동, 〈풍적〉

- 《표준대국어사전》(국립국어원)

오히려 온전한 내용의 합일까지 〈둥짓달〉은 이룩한다. ‘감정 따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정적 모양을, 원래의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빈틈없이 짝 찬 마음의 모양으로 멋지게 바꾸어 놓는다. 이런 ‘서리서리’의 감흥을 온전히 안고 마지막 종장으로 갈 때 ‘구뵤구뵤’의 실감도 그만큼 커진다.

종장의 ‘얼은 님’의 표기 역시 한 번쯤 곱씹어 볼 말이다. 이 말은 ‘어른’, ‘어른’, ‘정든’ 등 여러 형태로 표기하는데, ‘얼우다’란 옛말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얼은 님’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잘 알려진 대로 〈서동요〉에도 있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섹스하다’, ‘성교하다’, ‘씹하다’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결 아름답고 멋스럽다. 더구나 ‘어르다’, ‘어루만지다’, 〈춘향전〉의 ‘업음질’ 등 유사 연관어를 떠올리면 더 정겹다. 물론 요즘 쓰는 ‘어른’의 어원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이미 고어(古語)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른’으로 충족되지 않는, 한자 ‘정인(情人)’을 연상케 하는 순우리말로써 절묘하다. 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낸 대표적 고려가요 〈만전춘별사〉를 보자.

얼음 위에 맺었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었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준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얼음’, ‘얼우다’, ‘정 주다’, ‘얼다’ 등 말의 활용이 절묘하다. ‘얼다’는 말에는 ‘물이 얼다’는 뜻 이외에도 ‘남녀가 얼다’, 곧 ‘남녀가 사랑하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뒷부분에 나오는 ‘얼어 죽을망정’은 추워서 죽는다는 뜻도 되고, 사랑하다 죽는다는 뜻도 된다.

이 맥락에서 황진이 <동짓달>의 ‘얼은 남’도 ‘물이 얼다’의 뜻까지 살려 차디찬 바깥세상에서 고생하는 낭군을 은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이 끌어안고 있는 시간을 한겨울만으로 한정해도 좋다. ‘춡고 외로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 나가는 사랑의 시, 하나의 상상적 현실, 또는 선취(先取)된 현실로서 님과의 황홀한 합일로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깊은 사랑을 육체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육체 모두가 행복해지고 황홀해지는 이런 사랑의 시를 어디서 보겠는가. 이렇게 보면 황진이의 <동짓달>은 춡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깊어지면서 깊어진 만큼 생생하게 살아나는 삶의 방법, 사랑하고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인생의 시이기도 하다.

뛰어난 작품은 앞선 작품들을 끌어안고 넘어서며 더 우람한 산맥을 형성하는 법, <만전춘별사> 외에도 <동동>, <이상곡>, <육자배기> 등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라는 <밀양 아리랑>의 앞뒤 안 맞는 요구도 황진이의 <동짓달>을 연상하면 자연스레 가능한 세계이다. 사랑의 황홀경, 존재의 충만감을 위엄 있게 그려 낸 ‘불후의 명작’ <동짓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